

학원수강생의 자기효능감 및 적극적 상담참여의 요인과 자기조절학습행동*

이미숙** · 최낙환***

요 약

본 연구는 학습자 스스로 계획하고 학습과정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자기조절학습의 요인을 탐색한다.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분석하였다. 자기조절학습행동에 자기효능감과 적극적 상담참여가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탐색되었고, 학부모의 추천과 교사의 신뢰는 적극적 상담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식별되었다. 그리고 과거의 성취경험과 모델링은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으로 식별되었다.

학원경영자는 학습자의 과거의 성취경험의 부각과 모델링에 의해 자기효능감을 고취하고, 학습자의 적극적 상담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사의 전문성개발을 유도하여 신뢰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부모의 추천에 의해 학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학부모관리를 꾸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학습자들이 자기조절 학습행동을 하여 경쟁력을 갖게 만들고, 학원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주제어 : 과거의 성취경험, 모델링, 자기조절학습, 자기효능감, 적극적 상담참여.

* 논문접수일 2011년 6월 21일, 게재확정일 2011년 10월 30일

본 연구는 학술진흥재단과 한국산업경제저널에서 정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함

** 제1저자, 전북대학교 경영학부 석사과정

*** 교신저자, 전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 서론

학원교육 환경에서의 학습 성과는 교육과정 안에서 요구되는 목표수준의 도달이며 교실 안에서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인 문제해결력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학습 성과와 만족은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며 개인이나 조직에 따라 목표기준도 달라질 수 있고, 각기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목표달성에 성공하게 되면 과제에 대한 흥미와 효능감이 상승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이지만, 반면에 목표달성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크게 실망하거나 효능감이 크게 감소하지도 않으며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만족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교육과정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서술형강좌나 표현중심학습 등으로 실제 학습현장 안에서는 도전과 포기라는 양극화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고교 다양화 및 선택제, 입학사정관제 등으로 학교선별방식에서도 내신비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하며 복잡한 변화들은 초중등 학습자의 경우에는 원하는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성인과 달리 오히려 많은 장애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일상화된 핸드폰사용이나 게임, 오락 등은 쉽게 통제하기 어려우며 주위사람이나 학부모들도 사회요구에 따라 더욱 바빠진 업무 때문에 변화된 교육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교육과 더불어 특히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교육에서는 이러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형태로 자기주도형학습이나 수준별 학습 등으로 교육과정이 다양화되고 있다. 그리고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습량의 증가와 내용의 심화가 가중되기 때문에 학습 성취도가 지속적으로 낮을 경우 자아존중감의 상실이나 좌절감을 갖을 수 있고 자기 스스로 학습무능력자로 판단할 수도 있다. 또한 평생학습이 생활화되어 능동적 학습능력과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청소년 학습자들에게 수동적 학습이 고착화된다면, 개인적 사회적 손실과 정서 및 행동영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수행에 대한 목표지향성을 추구하고 학습행동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행위에 대한 즐거움과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학습과업에 집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여 학습목표를 달성하는 긍정적 자아성취를 위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의 성취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은 학습과정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자기조절학습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자기조절학습은 인간행동의 기본이 되는 자신의 내적 안내체계로 학습하는 것인데, 학습활동에서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스스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구조를 말한다. 즉, 자신의 일상행위를 의도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조절하여 학습활동에 주의집중을 기울인다는 의미다.

실제로 학습자들은 학년이 올라가서 중, 고등학생이 되면 학습량이 많아지고 내용이 심화되고 세분화되면서 학교수업 시간 안에서 완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학원

을 이용할 수 있고 스스로 학습하여 익히거나 정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 과목과 많은 양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나누고 자신의 공부과정을 통제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성공적인 학습결과를 나타내는 학습자들의 상당수가 자기조절학습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Eccles et al, 1998; 박승호, 2004).

그런데 공교육에서는 이처럼 활발히 논의되는 자기조절학습행동이 사교육에서는 아직까지 연구되지 않았고, 학습 성과에 치중하는 대부분의 학원교육에서는 자기조절학습행동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고와 사교육에서는 스스로 학습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조절학습행동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학원교육에서도 학습자는 자신의 성취에 초석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하며, 학원교육 안에서도 자기조절학습행동이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학원교육 안에서도 미래를 살아갈 학습자들에게는 심화되고 다양한 지식융합능력이 더욱 요구될 것이므로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독립적인 학습자로서의 준비가 필요하여, 자기조절학습이 비교적 나이가 어린학습자에게 내재화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조절학습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탐색한다. 둘째, 학원교육 안에서 자기조절학습행동의 영향요인으로 자기효능감과 적극적 상담참여를 탐색하고 실증한다. 셋째, 학원교육 안에서 자기효능감 요인과 적극적 상담참여요인을 탐색하고 실증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가설의 설정

1. 자기조절 학습

인간의 동기, 인지, 정서, 행동 등은 자기조절 능력과 함께 활발한 발달을 이루게 된다. 인간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인지, 정서조절 능력이 가장 핵심이 된다는 것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Saarni et al., 1998).

Bandura(1986)에 의하면 자기조절에서 첫째 행동이 자기관찰이다. 즉, 자기의 행위를 의도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주의집중을 기울인다.

Kanfer(1970)가 자기감시(self-monitoring)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사람이 반사적 행동을 제외하고 보통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관찰하면서 행동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자기관찰은 개인의 행동변화에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하면서 자기효능감을 지속시킴으로써

가능하다.

두 번째는, 현재 실행하는 행위를 자신의 목표와 비교하는 자기 판단과정을 말한다.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목표달성정도를 관찰하면서, 성과달성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입수하고 또한 본인의 판단에 맞추어 정보의 이용여부를 결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 경로를 통해 자기 판단은 얻어지는데 다른 사람에게 배우거나 개인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반응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타인의 행동기준을 관찰하면서 모델링이 형성되기도 한다(Bandura, 1986).

판단의 기준, 성과의 특성, 성과달성의 중요도와 수행귀인에 따라 자신의 행동수행의 여부는 결정된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행동을 잘 수행 한다는 신념은 자기효능감을 더욱 증진시키고 다음 행위인 자기 반응에 영향을 준다.

세 번째, 자기 반응은 성과달성을 위한 노력을 활성화시키는 평가적 자기 반응이다. 자신의 행위의 성공과 실패의 귀인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 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행동과정은 의존적으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자기조절을 수행해 간다. 또 자기조절능력을 가진 학습자는 많은 학생들이 수업받는 교실환경에서 소음과 여러 주의산만의 어려움에 처한 환경이었지만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한 학습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학습수행태도를 보였다(Pintrich, 2000).

자기 조절 능력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스스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인간행동의 기본이 되는 내적안내체계로서 구조를 말한다고 하였다. 과제나 학습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학습자는 자기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함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자기조절전략과 자기효능감 간에 긍정적 연관성이 있고, 자기 효능감의 판단은 자기조절능력과 실제실행과정 속에서 정적인 상관이 있다(Pintrich, 1999).

또한 나이 어린 학습자의 경우에도 자기조절을 통해 학습하면 최상위가 된다는 학습자가 많았다(Eccles et al., 1998). 그러나 나이가 들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들의 능력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거나 부정적이 되면서 자기효능감은 떨어질 수도 있다. 청소년시기에 자기조절 학습전략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덜 동기화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기조절학습이 감소한다는 것은 그러한 동기화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시사하고 있다(박승호, 2004). 그러나 설사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성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은 기대하는 성과를 내게 되고 본인스스로에게 그러한 과정자체만으로도 만족을 가져다줄 수도 있다.

2. 자기조절 학습의 원인변수

본 논문에서는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자로서 자신의 학업성취에 대한 목표를 스스로 세우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지적으로 사고와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통제, 조절하는 적극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기 위하여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 상담을 통한 대처방법의 탐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자기조절학습의 원인변수로 자신이 어떤 행동을 수행 할 수 있다 또는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 및 자기기대인 자기효능감과 개인이 추구 하는 일에 대한 추진력을 유발할 수 있는 적극적 상담참여를 통해 자기조절학습이 촉진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진행된다.

1) 자기효능감

Bandura(1977a; 1986)는 학습자가 어떤 활동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기 판단이라고 자기효능감을 규정하면서 학습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효능성의 기대를 어떻게 지각하는지와 어떻게 할 것인지의 인식된 결과로서 "지각된 효능성(perceived efficacy)", "자기효능 신념 및 기대(belief or expectation of self-efficacy)"라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은 행동수행에 요구되는 동기와 인지적 근원이며 수행방향을 결정하는 개인의 판단능력(Gist and Mitchell, 1992), 성과달성에 필요한 정신적, 신체적, 인지적 능력의 힘에 동력으로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Eden and Aviram, 1993). 자기효능은 행동 뿐 아니라 사고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결과에 대한 기대와는 구별해야 된다. 즉 결과에 대한 기대는 수행 후의 결과믿음이면서 후견적 개념이지만 자기효능성의 기대는 미래에 수행될 행위가 성공적이라는 믿음이므로 선견적인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효능기대가 큰 낙관적인 사람은 과제수행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매진하고 노력과 끈기로 적극적으로 수행하는데, 실사 실패를 하더라도 능력보다는 노력의 부족으로 귀인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자기효능감을 빠른 속도로 회복한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 이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왔는데 특히 교육 분야의 아동의 수학성취 실험에서 수행된 인지학습 연구에 의해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 정의적 측면과 교사태도 측면 등의 비교적 많은 양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Schunk, 1984).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영미와 김아영(1998)의 연구에서도 과제도전변수로서 학업적 성과를 추측하는데 자기조절 효능감이 유의미한 변수임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취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며 체계적인 목표설정과 성과달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에 많은 노력과 끈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높은 자기조절학습행동

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가설1: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은 자기조절학습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상담참여의 적극성

고객의 서비스참여라는 개념연구나 이론적 정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리되고 있으며 대부분 서비스관련 산업에서 연구되고 있다. 서비스라는 특성상 비분리적인 상황이기에 고객참여는 절대적인 요소이기도하다.

그러나 사교육 서비스 환경에서는 학교교육의 보완적인 기능으로서 학교와 유사한 구조 안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부모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제공자 입장에서 운영시스템의 의해 대부분 진행되고 있다.

사교육 서비스 환경에서 개별학습학원이나 자기주도 학습관 이라는 명칭으로 학부모상담과 개별수준을 평가해 그에 적합한 단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서비스산업이라는 시각에서 바라 볼때 분명 학습자는 고객임에 틀림이 없고 적극적 고객참여는 서비스의 전달과정과 서비스의 품질향상에서도 중요한 요소이다(한상린, 유재원, 공태식, 2004).

그렇다면 사교육서비스 환경 내에서 학습자가 서비스의 일부분으로서 적극적 참여를 통해 서비스 질을 개선시키고 발전시킴으로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 받지 않을까? 또한 학습자의 서비스참여는 교육적 성과달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리라 예측된다. 게다가 능동적 학습자로서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학습 성과 달성에 이룬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서비스만족을 가져올 것이고 그것은 바로 지속적 구매 서비스 이용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담과정 속에서 학습자가 추구하는 목표계획을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 효율적 자기 조절학습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Latham과 Locke(1991)에 의하면 개인의 목표설정은 자신의 적합한 수행수준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함으로써 자기조절능력을 활용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교육환경에서도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상담참여가 자기조절학습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학습자의 적극적 상담참여는 자기조절학습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자기효능감 요인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도전적 과업을 선택하고 주어진 과업을 달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과 인내를 한다(유효현, 2005). 효능감이 높으면 불안정도는 낮고 학습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수행을 지속시키는 동력이기 때문에 높은 수행수준과 성공적인 성과달성을 보이게 될 것이다(Pintrich, De Groot, 1990). 그러나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업적 분량과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필요한 성적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우울해지기도 하고 특정과목에 대해 포기하는 사례도 흔히 접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학습자로서의 상황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에 진출해서도 스스로 사고하여 자신감 있게 일을 해내기보다는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져 수동적 존재가 편하다고 느끼거나 심한 경우 무기력상태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일반학습자의 경우에는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학업에 열중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과정 안에서도 교육종사자는 자기효능감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변인들을 탐색하고 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러한 변인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자기효능감은 학습목표달성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연구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관점에서 자신의 과거성취경험과 자신과 유사한 동료의 성취경험을 자신의 효능감평가의 요인으로 보고, 또 부모와 교사는 자신을 지원해주는 의미가 있는 타인이기 때문에 부모와 교사의 지지정도와 기대를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으로 도입한다.

1) 과거성취 경험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자신을 통제조절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을 때는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감정은 나는 할 수 있다는 강한 자기효능감이 높게 하고 다른 과업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다준다(Bandura 1977b).

자기효능감은 학습과정 안에서의 성취와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되는데, 교육과정상의 교육의 내용 및 교실안에서의 문제해결력 등을 포함하여 정의적, 지적, 신체적 영역 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학습자가 성취하도록 의도한 것이거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잠재적 과정을 통해 성취가 이루어진 것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 성취 경험은 학업에 매력을 느끼게 하고 과업수행에 몰입하여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기효능감은 더욱 촉진하게 됨으로써 다음 학습목표설정에서의 성공적인 학습성취 계획을 확신하게 된다.

가설3: 과거성취 경험은 자기효능감에 정(+)³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모델링

모델링은 타인을 통한 대리경험으로 교육서비스현장에서는 다양한 여러 학습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며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동일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모델링은 학습자가 타인의 경험을 보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또는 협동학습을 통해서 조별과업에 참여시켜 경험하게 하는 비교적 용이한 접근방법이다.

학습자에게 자신과 유사한 모델의 성취경험은 자신과 유사한 타인의 성취모습을 관찰하게 함으로써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자기의지를 키우고 자기효능감을 갖게 하여 성취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신감을 유발 할 수 있다(Bandura, 1977a). 특히 모델이 자기 자신과 유사할수록 강한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으며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과의 공동수동 안에서 같은 팀원과 부담없이 직접적 성취경험 또는 공동 수행자로서의 타인의 경험관찰을 통해서 자기효능감을 얻을 수도 있다.

가설4: 모델링은 자기효능감에 정(+)³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부모와 교사와의 기대와 지지

자기효능감의 환경적 요인으로서 타인의 기대수준이나 지지는 학습자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받게 한다.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타인은 학습자와 아주 가까이에 있는 부모나 교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도윤과 양성은, 2009). 특히 직접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교육을 시키는 교사의 기대와 정신적 지지는 어떤 것이든 간절히 바란다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피그말리온 효과가 적용되어 학습자의 학습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자기효능감을 자극할 수 있다. 인간은 주변 환경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역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러한 환경은 동시에 물리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인간에게는 심리적 환경요인이 중요하다고 한다.

즉, 주변 환경에 있는 부모와 교사가 어떻게 기대하고 지지하고 있는가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으며 개인은 타인의 기대치만큼 수행을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기대치이상으로 수행을 잘 해낼 수도 있다(안재찬, 2005). 학업성취도가 월등한 학습자들의 경우에도 학업성과달성의 원인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높은 기대에서 기인했다고 보고하였다(신종호 등, 2004).

Rosental과 Jacoson(1968)의 실험에서도 교사의 기대수준에 따라 학습자들이 행동을 달리 한다는 것인데 교사에게 높은 기대를 받은 학습자는 학업성과에서 높은 성취를 나타낸 반면에 낮은 기대를 받은 학습자의 경우는 낮은 학업성취를 보여 주었다. 교사가 학습자를 신뢰하고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학습자의 성취동기가 자극되어 긍정적 영향으로 자기효능감이 촉진된다고 한다. 학습자 수행에 대한 교사기대수준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가정환경이 좋은 학습자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사의 기대와 지지가 높았을 때 성적도 높았음을 보고하고 있다(김경식, 2006).

이러한 여러 선행연구를 참고 해 볼 때 학습자와 가까운 타인의 긍정적 기대수준이나 지지는 학습자에게 자기효능감을 갖게 하는 유용한 통로임을 알 수 있다.

가설5: 교사의 기대와 지지는 자기효능감을 높여줄 것이다

4. 학습상담 참여의 적극성요인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자기조절학습자들은 지식을 습득함에 있어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하여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여 조직화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스스로 점검하고 자기평가하며 최적의 환경을 선택하고 조직한다(Zimmerman, 1990). 이것은 학습자의 능동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존에 교수학습중심환경에서 능동성을 강조한 학습자중심의 환경으로 전환 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이미봉, 2004).

그러나 초등학교 때는 자신의 학업과제에 대해 잘 할 수 있다고 지각하거나 최고의 수준에 있다고 믿는 경향을 보이지만 중학생이 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들의 능력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게 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모습들을 대다수의 학습자에게서 목격하게 된다. 실제적으로 많은 수의 학습자들이 학습동기를 가지고 자기효능감 안에서 자기조절학습을 해나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설령 학습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기학습조절로 연결되는 것 또한 그리 쉽지는 않다.

그러나 적극적 상담참여를 통해 기대되어지는 성취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학습과업을 함으로써 학업성취달성 뿐 아니라 학습과정에서의 만족도 함께 달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상담에 참여하여 자신의 문제를 점검하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자신을 지원하는 부모와 학습에서 실질적 가르침을 주는 교사는 자신의 학습활동에 유용한 사람들이다. 개방적이며 정직하고 능력이 있다는 교사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교사와의 상담을 꺼리게 될 것이며, 자기를 지원하는 부모가 학원의 장점을 전하고 추천하는 것은 교사와의 상담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

구는 교사에 대한 신뢰와 학부모의 추천을 상담참여의 적극성 요인으로 가정하고 탐색한다.

1) 교사에 대한 신뢰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 또는 조직과의 상호 신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이나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또한 신뢰는 핵심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신뢰에 대한 선행연구는 1950~60년대 행동주의연구자인 Deutsch(1958; 1960)와 인간 신뢰척도를 개발한 사회심리연구자인 Rotter(1967; 1980)가 주축이 되어 개인의 일반적 신뢰성향을 연구하였다. 그런데 1980~1990년대 이르러 좀 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신뢰를 정적인 의미로서가 아닌 역동적 의미로서 바라보게 되었으며 사회적 조직과의 관계 내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신뢰는 개인의 관계뿐 아니라 개인과 집단, 더 나아가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더 넓은 의미와 다양성을 포괄한다.

이러한 개인적 관계와 조직과의 관계, 두 가지 관점은 신뢰척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신뢰성향에 초점을 둔 일차원적 관점과 신뢰관계에 초점을 맞춘 다차원적 초점으로 진행되었다.

Dasgupta(1988)는 개인의 신뢰성향이 행동과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어 인간에 기본성향이나 낙천적 성향을 개인의 신뢰성향에 포함시켰고, Rotter(1967)는 개인적 신뢰성향의 의미로 '대인간 신뢰(interpersonal trust)'라고 언급했으며 그것은 특정한 타인의 개념(concrete other)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타인의 신뢰(generalized other)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차원적 초점은 대인관계형성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바라본다(Deutsch, Rotter 1967; 1980).

하지만 일차원적 관점이 사회적 관계를 등한시하고 개인의 안정적인 특성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이후에 연구들은 그러한 한계를 보완해가는 방향으로 연구되면서 다양한 측면의 다차원적 접근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Lewis와 Weigert(1985)는 신뢰를 사회심리학적 맥락에서의 변인으로 보고 사회의 관계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제도와 규범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Hoy와 Tschannen-Moran(1999)는 신뢰는 "너그럽고 믿을 만하고 역량 있고 정직하고 개방적일 것이라는 확신에 근거하여 상대방에 대해 개인이나 집단이 기꺼히 취약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신뢰는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사교육환경 내 학원에서의 상담 및 지도교사와 학습자간에 신뢰로 한정시켜 규정 하고자한다.

Bryk과 Schneider(2002)는 학교교사에 대한 신뢰요인을 존경(respect), 타인에 대한 존중(personal regard for others), 역량(competence), 성실성(integrity)으로 제시하였고, 전찬열

(2000)은 상대방인격에 대한 신뢰와 상대의 능력에 대한 신뢰영역으로 보았다.

한편 종업원은 감독자에게 직무노력을 제공한다는 교환관계연구에서 신뢰(trust)는 상호관계의 핵심요소이며 감독자와 종업원의 관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요소이다(최낙환, 1999). 상사에 대한 신뢰는 지속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를 유도할 수 있으며, 감독자신뢰는 종업원들을 적응하게 하고 조직과 관련된 태도 및 행동형성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Holmes, 1981). 이러한 신뢰의 기능은 학습자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하는 교사의 신뢰기능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교사에 대한 신뢰는 장기적이고 비물질적인 전문성에 기초하여 발전되는 상호적인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교사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교사와 상호작용하는 상담참여에 적극적으로 따를 것이다.

가설6: 교사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교사의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이다.

2) 학부모의 학원추천

서비스분야에서 추천은 긍정적 구전의 형태로 서비스만족을 하면 특정한 기업, 서비스, 제품, 품질에 대해 주변인들에게 긍정적으로 말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 상품이 시장에 확대되기 위해 추천은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며(김창열, 2007), 소비자가 자신의 서비스경험을 주변인들과 공유하려는 태도에서 유도될 수 있다(김경희, 2009).

소비자가 만족스럽게 사용경험을 가졌을 때 그 주변의 잠재고객에게 적극적인 구매권유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특정기업의 사업적 기업광고보다는 가족, 친구, 이웃과 같은 중요준거 집단의 정보로 작용하여 더 신뢰하게 되지만 반대의 경우 구매를 하지 않게 되고 부정적 정보가 확산되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Richins, 1997).

정민희와 장양례(2000)는 추천은 구전의 하나의 형태로 고객이 서비스의 후속행동 결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알려주는 심리적인 행동이며 개인적 경험에서 얻어진 정보를 주고 받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라 하였으며 이것은 기업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 및 이윤을 계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고객유지마케팅 개념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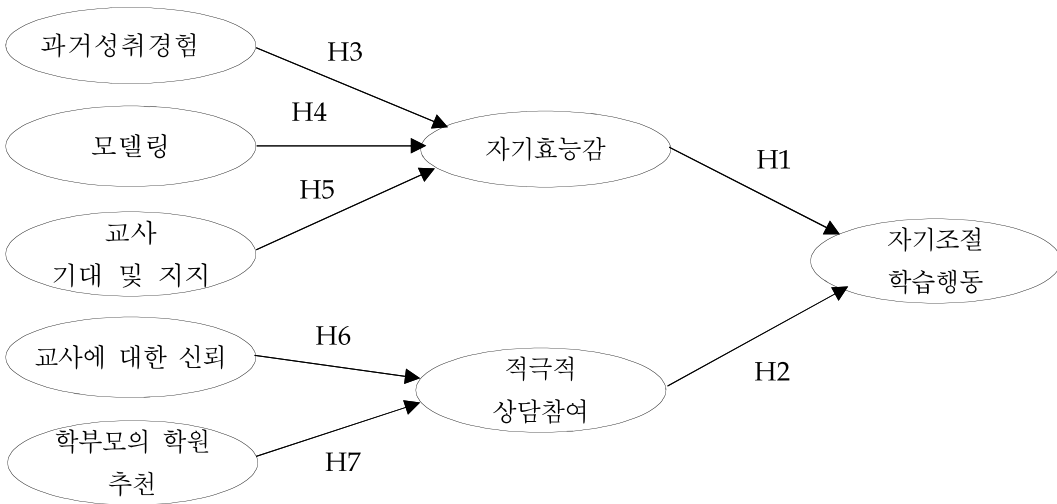
또한 흔히 주변의 가까운 사람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가 많고 믿고 신뢰 할 만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이루어지기 많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은 다른 마케팅보다 더욱 강력하고 확실한 결과를 주기도 한다.

사교육환경 내에서의 학부모추천은 학부모의 가까운 지인과 같은 준거집단에서 얻은 지식이나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지식경험에 비추어 만족할 것 같은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나 그에 준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교육환경의 추천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부모는 자녀가 추구하는 교육서비스를 만족스럽게 제공 받을 수 있다고 충분히 느낄

때 추천의 적극성을 띠게 되며, 학업성취가 자신의 자녀에게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이루어지게 된다. 학부모는 이러한 긍정적 정보를 학습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상담에 참여하도록 조력할 수 있다.

가설7: 학부모의 사교육환경추천은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상담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이상의 가설을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III. 측정과 자료수집

1. 구성개념의 측정

1) 자기조절 학습행동 측정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조절학습 측정문항은 중학생 대상의 이소희(2010) 측정도구를 학원교육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구성은 3문항이며 3개 요인인 시공간관리, 자원 활용, 노력규제 등으로 나누어 '나는

공부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투자한다' '나는 학습능력향상을 위해(공부를 잘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학원에서 배운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고 암기하려고 애쓴다'를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자기효능감 측정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로는 Pintrich와 De Groot(1990)의 연구에 기초하여 윤영화(2002)가 적용한 문항도구를 수정 사용하였다.

총 문항수는 3문항이며 '나는 수업시간에 자신이 있다', '나는 다른 학생들보다 수업시간에 더 잘 할 수 있다', '나는 새로운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를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상담참여의 적극성 측정

이 연구에서 상담참여의 적극성은 '상담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노력하며 상담과정에서 자기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의지'로 개념화 한다. 한상린, 유재원, 공태식(2004)의 고객의 참여행동 척도를 이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상담을 받기위한 시간을 할애한다'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다' '상담에서 나의 문제를 발견하려고 노력하였다'를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 과거성취경험 측정

과거성취경험척도는 본인 자신이 목표한 학습성취를 경험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세 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문항 수는 3개로 '나는 나의 학습목표를 달성한 경험이 있다', '나의 학습목표를 초과달성한 경험이 있다', '나는 학교의 교과목 학습이외에 다른 분야에서 목표를 성취한 경험이 있다'이며 7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5) 모델링의 측정

모델링을 측정하기위해 송인욱(2008)이 사용한 모델링행위, 매력성, 신뢰성 등의 척도를 학원교육에 알맞게 수정하였으며, '나도 그 친구처럼 하면 우등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내가 그 우등생 친구처럼 되면 지금보다 더 인기가 많을 것이다', '나는 내가 부러워하

는 그 친구에게서 우등생이 되는 방법을 배운다'로 3문항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6) 교사기대와 지지 측정

최지은(2010)의 교사지지척도와 교사기대척도를 학원교육에 알맞게 수정하여 사용 되었으며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평가적지지, 지적능력지지, 잠재능력지지로 이루어져 '우리 학원 선생님은 내가 노력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신다', '우리학원선생님은 내가 열심히 하면 다른 친구보다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신다', '우리 학원선생님은 내가 남보다 학습능력이 뛰어나며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 하신다'로 3문항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7) 교사에 대한 신뢰 측정

교사에 대한 신뢰척도는 이숙정, 한정신(2004)의 척도를 참고하여 능력, 믿음, 성실성을 '나는 우리 학원선생님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 한다', '우리 학원선생님들은 수업에 대해 준비를 많이 하신다', 우리 선생님은 내게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나 지식을 제공해 주실 것이다' 로 3문항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8) 학부모의 학원추천 측정

학부모추천의 측정도구로는 Fornell(1992)이 사용한 척도를 중심으로 학원교육에 맞도록 수정하여 7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부모님이 내가 다니고 있는 학원을 나에게 적극적으로 추천 하였다', '학부모는 내가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학원의 장점을 나에게 이야기 했다'로 문항 수는 2개로 구성하였다.

2.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설문은 관련 논문들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한 조작적 정의를 기초로 설문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설문은 2011년 5월4일부터 6일까지 전주에 있는 4개의 영어전문학원을 대상으로 총 201부가 배포되었고, 이중 불성실한 응답 및 오류가 발생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94부를 최종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남녀의 비율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95명(49%)이고 여학생이 99명(51%)을 차지했다.

설문에 응답한 연령층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이 각각 41명으로 42.2%를 차지했고, 중학생은 113명으로 57.8%를 차지하였다.

IV. 실증분석

1. 신뢰성과 타당성 평가

본 연구의 가설을 구성하는 구성개념별 측정 항목들의 신뢰도(reliability)를 검증하기 위해 외생변수 및 내생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을 Cronbach's α 를 통해 살펴 보았는데, 학부모 추천 .552 을 제외하고는 교사에 대한 신뢰=.861 적극적 상담참여=.819 자기효능감=.861 자기조절 학습행동=.811 과거성취경험=.799 교사의 지지 및 기대=.837 모델링=.725 등이 0.7이상 값을 보이고 있어 신뢰도가 확보되었다(<표1>참고).

또한 본 연구는 측정 변수들의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검증하기 위해 SPSS18를 사용하여 베리맥스(Varimax) 회전법을 통해 주성분 요인분석(the principal component factors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수렴타당성이 입증되었다(<표1> 참고).

<표 1> 측정 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 | 측정항목 | 요인1 | 요인2 | 요인3 | 요인4 | 요인5 | 요인6 | 요인7 | 요인8 |
|---------------------|--|------|------|------|------|------|------|-------|------|
| 교사 에 대한 신뢰 | 우리 학원선생님들은 전문성이 있음 | .849 | .139 | .062 | .109 | .134 | .222 | -.017 | .115 |
| | 우리 학원 선생님들은 수업 준비를 많이함 | .808 | .017 | .163 | .043 | .241 | .130 | .061 | .131 |
| | 내게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지식을 제공해 주실 것임 | .742 | .256 | .143 | .148 | .095 | .105 | .129 | .158 |
| 자기 효능 감 | 수업시간에 자신이 있음 | .158 | .829 | .188 | .118 | .164 | .134 | .198 | .073 |
| | 다른 학생들보다 수업시간에 더 잘 할 수 있음 | .210 | .757 | .012 | .165 | .312 | .117 | .150 | .104 |

| | | | | | | | | | |
|-------------|--|-------|------|------|------|-------|------|-------|-------|
| | 새로운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음 | .088 | .726 | .295 | .242 | .139 | .177 | .140 | -.052 |
| 적극적 상담 참여 | 학원선생님과 상담시 적극 참여함 | .176 | .171 | .840 | .057 | .114 | .143 | -.016 | .043 |
| | 나는 학원선생님과 상담을 위해 시간을 조정함 | -.032 | .053 | .804 | .078 | .142 | .060 | .111 | .105 |
| | 상담을 통해 나의 문제를 발견하려고 노력함 | .341 | .211 | .739 | .043 | .148 | .064 | .157 | .059 |
| 과거 성취 경험 | 내가 설정한 학습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 있음 | .013 | .143 | .004 | .809 | .182 | .253 | .115 | .003 |
| | 나의 학습목표를 초과달성한 경험이 있음 | .164 | .069 | .108 | .805 | -.029 | .048 | .011 | .090 |
| | 학교 공부이외의 다른 분야에서 목표를 성취한 경험이 있음 | .092 | .231 | .063 | .779 | .146 | .100 | .187 | .081 |
| 자기 조절 학습 행동 | 공부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투자함 | -.040 | .196 | .149 | .059 | .823 | .130 | .139 | .107 |
| | 학습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함 | .295 | .141 | .084 | .127 | .796 | .099 | .059 | .107 |
| | 학원에서 배운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고, 암기하려고 애씀 | .266 | .172 | .192 | .099 | .730 | .016 | .040 | -.011 |
| 교사의 지지 및 기대 | 우리 학원 선생님은 내가 노력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함 | .237 | .105 | .072 | .109 | .087 | .870 | .167 | .051 |
| | 우리학원 선생님은 내가 다른 친구보다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함 | .186 | .135 | .096 | .201 | .090 | .835 | .298 | .053 |
| | 우리 학원 선생님은 내가 남보다 학습 능력이 뛰어나며, 기억력이 좋다고 | .056 | .410 | .260 | .216 | .135 | .576 | -.006 | .170 |

| | | | | | | | | | |
|-------------|---|--------|--------|--------|--------|--------|--------|--------|--------|
| | 생각함 | | | | | | | | |
| 모델링 | 나도 그 친구(내가 부러워하는)처럼 하면 우등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086 | .057 | .131 | .085 | .079 | .193 | .815 | .073 |
| | 내가 우등생 인 그 친구처럼 되면, 지금보다 더 인기가 많을 것임 | .177 | .262 | -.137 | .041 | .040 | .164 | .753 | -.058 |
| | 나는 내가 부러워하는 그 친구를 통해 우등생이 되는 방법을 배움 | -.091 | .099 | .238 | .165 | .110 | .036 | .704 | .152 |
| 학부모의 학원 추천 | 부모님은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학원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심 | .126 | -.002 | .049 | .031 | .112 | .127 | .045 | .888 |
| | 부모님이 지금 내개 다니고 있는 학원의 장점은 나에게 이야기함 | .385 | .146 | .188 | .186 | .057 | .101 | .143 | .622 |
| 신뢰도 | | .861 | .861 | .819 | .799 | .811 | .837 | .725 | .552 |
| Eigen Value | | 7.758 | 2.007 | 1.680 | 1.486 | 1.409 | 1.195 | 1.074 | .896 |
| 설명분산(%) | | 33.732 | 8.724 | 7.306 | 6.460 | 6.126 | 5.195 | 4.670 | 3.897 |
| 누적분산(%) | | 33.732 | 42.456 | 49.762 | 56.222 | 62.349 | 67.543 | 72.214 | 76.111 |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Amos18.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 단위의 표준 부하량의 의미를 평가하는 C.R값이 모두 2보다 큰 값으로 나타났으며, Hair 등(2006)의 공식에 의해 AVE값이 모델링(.481)과 학부모 추천(.487)에서 약간 미흡하나 나머지는 0.5이상으로 본 연구의 측정모델이 집중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탐색되었다 (<표 2>참고).

<표 2 > 측정 모델의 분석 결과

| 개념 | | Estimate | S.E. | C.R. | P | AVE |
|--------------|----|----------|------|--------|-----|------|
| 과거 성취경험 | a1 | 1.000 | | | | .580 |
| | a2 | 1.092 | .105 | 10.397 | *** | |
| | a3 | .830 | .098 | 8.468 | *** | |
| 모델링 | b1 | 1.000 | | | | .481 |
| | b2 | 1.252 | .161 | 7.785 | *** | |
| | b3 | .865 | .129 | 6.719 | *** | |
| 교사기대 및 지지 | c1 | 1.000 | | | | .676 |
| | c2 | 1.556 | .166 | 9.352 | *** | |
| | c3 | 1.392 | .152 | 9.153 | *** | |
| 교사에 대한 신뢰 | d1 | 1.000 | | | | .681 |
| | d2 | 1.121 | .092 | 12.167 | *** | |
| | d3 | 1.048 | .092 | 11.404 | *** | |
| 학부모의 학원추천 | e1 | 1.000 | | | | .487 |
| | e2 | 1.025 | .201 | 5.109 | *** | |
| 자기 효능감 | f1 | 1.000 | | | | .682 |
| | f2 | 1.049 | .090 | 11.640 | *** | |
| | f3 | 1.172 | .091 | 12.810 | *** | |
| 적극적 상담참여 | g1 | 1.000 | | | | .622 |
| | g2 | 1.279 | .143 | 8.936 | *** | |
| | g3 | 1.204 | .135 | 8.920 | *** | |
| 자기조절 학습행동 | h1 | 1.000 | | | | .579 |
| | h2 | 1.093 | .123 | 8.891 | *** | |
| | h3 | 1.154 | .126 | 9.185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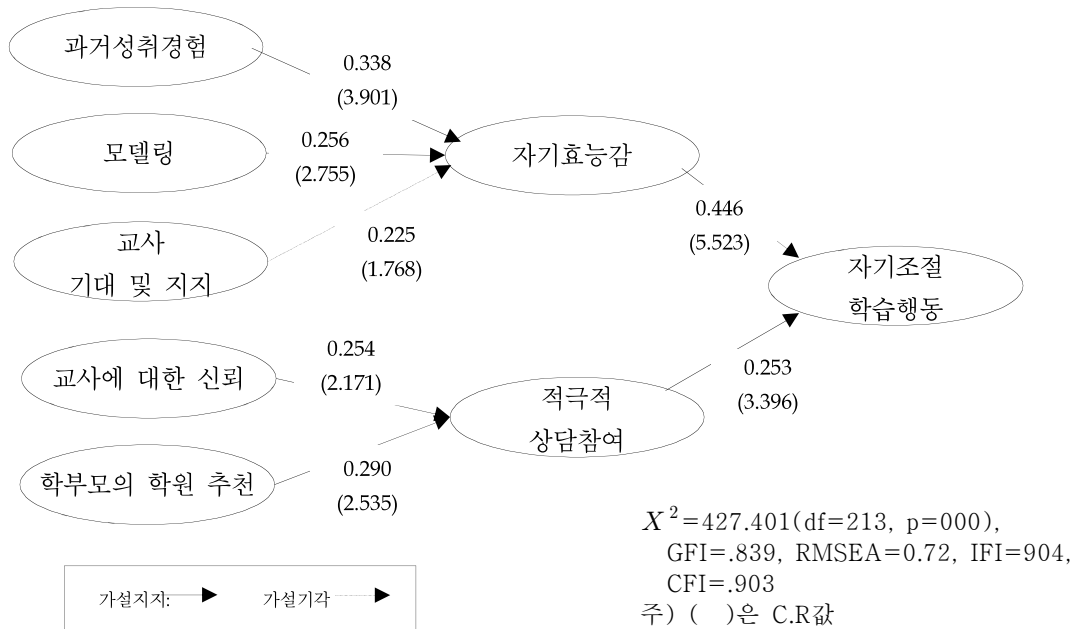
2. 연구가설의 검증

1)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Amos18.0을 사용하여 설정된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였다 (<표 3>참조).

가설검증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427.401(df=213, p=000)$, GFI=.839, RMSEA=0.072, IFI=904, CFI=.903로 나타났다.

2) 연구가설의 검증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

본 연구에서 제한한 가설의 검증결과는 <표 3>과 <그림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자기효능감은 자기조절 학습행동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H1). 그리고 적극적 상담참여도 이와 동일하게 자기조절 학습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2).

둘째, 과거의 성취경험은 자기 효능감에 영향요인(H3)으로 식별되었다. 이와 함께 모델링도 자기 효능감에 영향요인(H4)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설을 통해 예측했었던 교사의 기대 및 지지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H5).

셋째, 교사에 대한 신뢰는 적극적 상담참여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H6), 학부모의 학원추천도 적극적 상담참여의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H7).

<표3 > 가설 분석 결과 요약

| 가설경로 | | | 부 호 | Esti-mat e | S.E | C.R | P | 채택 여부 |
|--|---------------|--------------|--------|---|------|-------|------|----------|
| 가설 | from | to | | | | | | |
| H1 | 자기효능감 | 자기조절 학습행동 | + | .446 | .081 | 5.523 | *** | 0 |
| H2 | 적극적 상담참여 | 자기조절 학습행동 | + | .253 | .075 | 3.396 | *** | 0 |
| H3 | 과거성취경험 | 자기효능감 | + | .338 | .087 | 3.901 | *** | 0 |
| H4 | 모델링 | 자기효능감 | + | .256 | .093 | 2.755 | .006 | 0 |
| H5 | 교사 기대 및 지지 | 자기효능감 | + | .215 | .122 | 1.768 | .077 | x |
| H6 | 교사에 대한 신뢰 | 적극적 상담참여 | + | .254 | .117 | 2.171 | .030 | 0 |
| H7 | 학부모의 학원추천 | 적극적 상담 참여 | + | .290 | .114 | 2.535 | .011 | 0 |
| 적극적 상담참여의 R^2 : 0.291 자기효능감의 R^2 : 0.418 자기조절학습행동의 R^2 : 0.360 | | | | $\chi^2=427.401(df=213, p=000)$, GFI=.839, RMSEA=0.072, IFI=904, CFI=.903 | | | | |

따라서 가설5만 기각되고, 가설 1, 2, 3, 4, 6, 7은 모두 채택되었다.

V. 결 론

1. 연구의 요약

자기조절 학습은 학습자 스스로가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며 학습과정을 통제하고 조절해 나가는 것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학습자들에게는 고학년이 될수록 학습자로서의 독립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학습자에게 내재화될 자기조절학습이

필요하다. 내적 안내체계로서 자기조절학습은 자신의 학습행위에 여러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주의집중하게 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사교육에서 학습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자기조절학습행동의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초등 5, 6학년 학생과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194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효능감과 적극적 상담참여는 자기조절학습행동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자기조절학습과정에서도 학습자들에게 교사나 주위사람들이 적극적인 상담을 유도하여 학습자의 도전과 인내에 대해 격려와 칭찬을 주고, 효능감을 북돋아 주면, 더욱 효과적인 학습과정과 학습성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과거의 성취경험과 모델링은 자기 효능감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지만, 교사의 기대와 지지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기각 되었다. 교사의 기대나 지지가 학습자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기보다 오히려 기대나 지지가 학습기대치를 채워야 한다는 부담으로 느껴진 다거나 또 다른 과업의 형태로 여겨지지 않을까하는 예측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원 안에서의 교사가 과도하게 목표치를 제시하거나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은 비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에 대한 신뢰와 학부모의 학원추천은 적극적 상담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탐색되었다. 학습자들에 대한 적극적 상담을 위해서 교사는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꾸준한 학부모관리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고취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구전을 통해서 학원이 학습자들의 재구매로 연결되어 경쟁력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게 한다.

2. 시사점 및 한계

공교육에서는 활발히 논의되는 자기조절학습행동이 사교육에서는 아직까지 연구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학원교육은 학습성파에 치중하기 때문에 자기조절학습행동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통념과 사교육에서는 스스로의 학습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동기 뿐 아니라 학습성취도 향상에 있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달리, 이 연구는 학원교육에서 도 학습자가 스스로를 통제해 나가며 학습하는 자기조절학습행동이 적극적 상담참여와 자기효능감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성취경험과 모델링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요인으로, 교사에 대한 신뢰와 학부모의 학원추천은 적극적 상담참여에 정의 영향요인으로 탐색되어, 학원교육에서 자기조절학습행동의 이론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실증결과는 학원관리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의 과거성취경험을 부각시키고 모델링을 통하여 자기효능감수준을 높여 주고, 또 학부모의 추천과 교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관리적 관점에서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가 이론적 관리적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지만 연구의 한계점과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안고 있다.

첫째, 연구대상이 학원학생들 중에서 초5~6학년과 중학생으로 제한되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무리가 있으며 다양한 학년 층으로 확장시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적극적 상담을 통한 자기조절학습행동이 학원학생인 본인의 의지인지 학부모나 주변인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신뢰성 측정에 있어 학부모 추천이 0.552로 낮게 나타나 척도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학부모의 추천 척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경식 (2006), “교사기대 형성과 변화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중등교육연구*, 54(2), 95-121.
- 김경희 (2009), “인터넷포털이미지가 장기지향성 소비자 만족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콘텐츠연구*, 9(8), pp.333-340.
- 김도윤, 양성은 (2009), “화교청소년과 한국청소년의 학업적성취동기, 부모 및 교사기대, 자기 효능감에 관한 비교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아영 (1998), “동기이론의 교육현장적용연구와 과제 -자기효능감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2(1), pp.105-128.
- 김창열 (2007), “Fast Food 기업의 친환경적 마케팅이 소비자의 구매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승호 (2004), “자기조절학습과 동기: 초동기와 의지통제의 교육적함의”, *교육방법연구*, 16(1), pp.95-114.
- 송인욱 (2008), “TV 방송의 ‘몸짱’ 신드롬이 청소년의 모델링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중섭,신태섭,권희경(2004) “학업수월성에 대한 귀인유형의 탐색적 연구”, *교육심리연구*, 18(4), pp.261-277.
- 안재찬 (2005), “자기조절학습 동기적변인들의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목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효현 (2005), “학업성취에 대한 관련변인의 예측력분석”,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영화 (2002), “자기조절 학습상담이 학습전략사용, 학습습관,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안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미봉 (2004), “자기결정동기와 자기조절학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소희 (2010), “부모의 학업지원이 지능에 대한 변화 신념과 성취목표 지향성을 매개로 자기 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관계 구조 모형 검증”, *청소년학연구*, 17(10), pp.77-103.
- 이숙정, 한정신 (2004), “교사 신뢰척도(Trust Scale)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18(3),23-39.
- 전찬열(2000), “신뢰와 조직효과성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13(2), pp.209-223 .
- 정민의, 장양례 (2000), “박람회여행 상품 속 만족에 의한 재 구매와 추천 관계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4(2), pp.235-253
- 최낙환 (1999), “판매원의 역기능행동에 대한 감독통제수단의 효과를 매개하는 감독자에 대한 신뢰도”, *한국마케팅저널*, 1(4), pp.104-124.

- 최지은 (2010), "가족, 친구, 교사의 지지가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비교",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상린, 유재원, 공태식 (2004), "고객의 참여행동과 시민행동이 서비스 품질지각과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비영리 대학교육 서비스를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33(2), pp.473-502.
- Bandura, A. (1977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pp.191-215.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ndura, A. (1997b),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 Company*.
- Bryk, A, and Schneider, B. (2002), Trust in Schools, *NY: Russell Sage*
- Dasgupta, P. (1988). "Trust as a commodity", In Gambetta, D. G, (ed). Trust, pp.49-72. New York: Basil Blackwell.
- Deutsch, M. (1958) "Trust & suspic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4), 265-279.
- Deutsch, M. (1960) "The effect of motivational orientation upon trust & suspicion", *Human Relations*, 13, pp.123-139.
- Eccles, J. S, A. Wigfield and Schiefele, U. (1998). "Motivation to succeed." In W. Damon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5th ed.. Vol. 3, "Social, emotional, & Personality development", NY: *John Wiley & Sons*, pp.1017-1095.
- Eden, D, and Aviram, A. (1993), "Self-efficacy training to speed reemployment: Helping People to Help Themselv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3), pp.352-360.
- Fornell, C. (1992), "A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Barometer: The Swedish Experience", *Journal of Marketing*, Vol. 56, pp.403-412.
- Gist, M. E, and Mitchell, T. R. (1992), "Self-efficacy: A theoretical analysis of its determinants & malleabil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7, pp.183-211.
- Hair. J. F. Jr.,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and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Prentice-Hall International*.
- Holmes, J. G. (1981), The exchange process in close relationships: Microbehavior and macromotives. In M. J. Learen and S. C. Lerner (eds), *The Justice Motive in social behavior*, pp.261-284. New York: Plenum.
- Hoy, W. K. and Tschanen-moran. (1999)," Five faces of trust: An empirical confirmation in urban elementary schools", *Journal of School Leadership*, 9, pp.184-208.
- Kanfer, F. H. (1970), "Self-regulation: Research, Issues, & Escalation" In C. Neuringer & J.

- Ichael (Eds.), Behavior modification & clinical Psychology, NY: *Appleton-century-Crofts*.
- Lewis, J and A. Weigert (1985)," Trust as a social reality", *Social Forces*, 63(4), pp.967-985.
- Richins, L. M. (1997), "Measuring emotions as the consumption experien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4, pp.127-146.
- Latham, G. P, and Locke, E. A. (1991), "Self-regulation through goal setting", *Organizational Behavior & Human Performance* 3, pp.157-189.
- Pintrich, p. R, and De Groot, E. V. (1990), "Motivational &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1), pp.33-40.
- Pintrich, P. R. (1999), "The role of motivation in promoting & sustaining Self-regulated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3(1), pp.459-470.
- Pintrich, P. R. (2000), "An achievement goal theory perspective on issues in motivation terminology, theory, & research",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 92-104.
- Rosenthal, R. and Jacobson, L.(1968), *Pygmalion in the Classroom: Teacher Expectation & Pupil's Intellectual Development*,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Rotter, J. B. (1967), "A new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interpersonal trust", *Journal of Personality*, 35(4), pp.651-665.
- Rotter, J. B. (1980), "Interpersonal trust, trustworthiness, gullibility." *American Psychologist*, 35(1), pp.1-7.
- Saarni, C, Mumme, D. and Campos, J. (1998)," Emotional development: Action, Communion, & understanding", In *Damon(Ed) Hanbook of child psychology*, NY: Wiley.
- Schunk, D. H. (1984), "Self-efficacy perspective on achievement behavior", *Educational Psychology*, 19, pp.48-58.
- Zimmerman, B. J. (1990), "Self-regulated learning & academic achievement: An overview", *Educational Psychologist*, 25(1), pp.3-17.

Influencing Factors of Self-Regulated Learning Behavior of Institute Academy Students

Mi-Suk LEE* · Nak-Hwan CHOI**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self-regulated learning of institute academy students by using 194 questionnaire copies from fifth-grade, sixth-grade of elementary students and middle school students.

Firstly, self-efficacy and active consultation participation were adopted to give influence to self-regulated learning behavior. Secondly, past achievement experience and modeling were effected but teacher's expectancy and support were not effected to give a cause. Teacher shouldn't give excessive expectancy and a high goal to the school students. Lastly, teacher's trust and parents' recommendation were adopted to give influence in active consultation participation. Active counsel participation was affected by teacher's high profession and parents' recommendation.

Until now, self-regulated learning becomes known impossibility in institute academy. However self-efficacy and active counsel participation gives a possibility of self-regulated learning to the institute academy students.

At the end, self-regulated learning can be the beginning of the study for a part of marking. But the critical points of research about the factors that influence self-regulated learning of institute academy students have to be done by using the samples of various school year students.

Keywords: self-regulated learning, active consultation participation, self-efficacy.

* Master studen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